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깨우치고 고집스런 마음을 깨뜨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걷는 인생의 길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5월 18일 (토) 제 1730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CT, 라이언 버지 교수의 ‘미 복음주의 태생적 한계 백인중심 틀 탈피’ 기고 보도

미국사회에서 보수적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는 말이 최근 부정적인 이미지로 브랜드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에 벗어나야만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스턴일리노이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 박사는 최근 크리스처너티투데이를 통해 미국의 복음주의가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밝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ace, Religion, and the Future of American Evangelicalism: Three important trends regarding race and faith that must be considered as we try to lead...

evangelicalism through this era). 라이언 버지 박사는 지난해 트위터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복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 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백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7년에는 ‘백인 복음주의’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된 것이 가장 많았다고 꼽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서 두드러지게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된 ‘백인 복음주의자’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리서치 기관들이 동성결혼, 낙태, 이민, 그리고 더 나아가 다가올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계획인지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러한 조사는 늘 있는 일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5명 중 1명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이것은 곧 미국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투표 집단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최소한 1명의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란 도대체 누구일까? 많은 여론조사원과 저널리스트들은 복음주의자는 대개 백인이며, 도시근교 거주민, 미국인, 남부인,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칭 복음주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관심에 대해 조사를 하면 2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자”가 “백인”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복음주의자에 대한 정의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도 주된 방법은 투표가 아니다. 정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가 복음주의자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으며, 규정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백인인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더욱 다양해졌고, 복음주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복음주의자”는 “백인”이라는 등식은 복음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빠른 탈피가 요구되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여론조사방식은 비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복음주의자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대적 아니면 아군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타 인종 크리스천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대적 아니면 아군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타 인종 크리스천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20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당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리스팅 작업 마감 8월말, 광고 8월초 마감

명실공이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8월말이며 광고마감은 8월초까지 가능하다. 본 주소록에 리스팅 게재를 원하는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은 게재 내용을 8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K 정회원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www.biblestore.com

제4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

일정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4시 - 6월 23일(주일) 오후 1시 (6박 7일)
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400 / 부부 \$600 (항공료 자부담)
장소 6월 17일-20일 NJ Christian Academy
6월 21일-23일 필라 안디옥교회
훈련내용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 땅광선교), 전문인선교사례, 타문화전도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선교집회 등



2016년 제1회 선교사집중훈련 2017년 제2회 선교사집중훈련



2018년 제3회 선교사집중훈련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전문인선교헌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선교집회



6월 17일(월) 임재영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전, 이스라엘 선교사



6월 18일(화) 고훈 목사 뉴욕 하운교회 PGM 정책이사장



6월 19일(수) 양충언 목사 Hispanic Ministry PGM 선교사



6월 20일(목) 김은범 목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PGM 정책이사장

강사진



안사무엘 목사 PGM 실명총무



Jay Kim 전도사 PGM 영어권 훈련부장



박상수 선교사 교육전문/강사사역 PGM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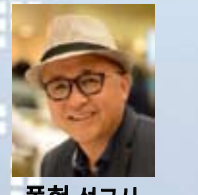


김현영 선교사 농축산전문/순회사역 PGM 선교사



정준영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사역 PGM 선교사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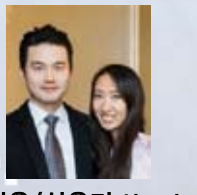


박현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PGM 선교사



이태후 선교사 필라도시민선사역 PGM 선교사

전도훈련



고대은/성은지 선교사 다민족교회개척사역 PGM 선교사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610.397.0484

● 발행인 칼럼 ●

은사와 직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나님은 직접 은사를 주신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신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귀하고 아름답다. 은사와 직분이 어울리면 가장 좋다. 은사가 없는 직분은 큰 아쉬움을 자아낸다. 은사도 없는데 역지로 직분을 맡기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이도 힘들다. 성경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빛나는 참모(參謀)가 많다. 그것이 그들의 은사이며 공동체의 복이다. 리더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리더의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의 기간 동안 머리 아플 일이 많다. 그 직분이 항존직일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직장생활을 효과적으로 잘 하던 사람이 누가 부추겼는지 자신이 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는지 덜컥 자기 사업하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왜 한둘이겠는가. 직분이 없는 은사도 있다. 직분이 없는 은사는 때때로 공동체에 위험을 안기거나 정반대로 감동을 주기도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 나를 알아 모시라”는 교만의 헛기침은 직분도 없지만 은사도 없는 사기(詐欺)일 경우가 농후(濃厚)하다. 직분은 없지만 은사로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

기독교 아동문학가로 살았던 권정생 작가의 작품 “몽실언니”는 그 이름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면서, 나의 어린 소녀 몽실일 뿐인데 오히려 생부(生父), 생모(生母), 계부(繼父), 계모(繼母), 그리고 친동생, 이복(異腹) 동생을 다 품는 것을 물론 한국 전쟁의 아픔까지 다 가슴에 담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직분은 없지만 모든 이의 어린 같은 나의 어린 소녀 몽실언니는 직분 없는 은사의 감동을 보여준다. 둘러보면 교회 안에 직분은 없어도 주님과 교회를 묵묵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마치 빈 상자처럼 여긴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돕슨(James Dobson)의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은 “Gift of Love”인데 그의 친구와 그 친구의 어린 딸 이야기였다.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어린 딸이 황금색 포장지를 낭비한다고 혼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이 그 다음날 황금색 포장지로 쓴 상자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 선물상자를 열어본 친구는 “이게 뭐냐”며 또 딸을 혼내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자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딸이 말한다. “아빠, 그 상자는 비어있는 것 아니어요. 내 사랑의 키스를 가득 넣어 담은 것이어요.” 친구는 딸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는 글이다. 그렇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이와 같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 같이 얼마나 무시하는가. 성령의 루하흐(바람)로 가득 찬 은사, 사랑의 선물 상자를 외면한 무례(無禮)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쉽지 않다. 지명을 할 때도 그렇고 선거를 통한 때는 더욱 그렇다.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지명을 할 때는 목사님이나 당회자 사사(私事)로 세우는 줄로 알거나 선거를 할 때는 교인들의 인기투표로 착각(錯覺)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가 이미 풍성하고 이미 받은 직분도 귀하게 받쳐 어떤 한 직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맡은 자의 사려 깊은 생각을 요청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직분을 생각해야 한다. 내 중심으로 직분을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진다.

은사와 직분은 애당초 나의 것이 아니다. 결단코 교회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다. 유일한 근원(根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사와 직분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혹 직분은 없더라도 겸손히 주어진 은사를 통해 묵묵히 섬김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은사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교회와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겠는가.

기계가 자동으로 노동자 해고하게 된다면?

BBC, 생산성 최대화위해 AI에 해고당하는 부작용 있다고 보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을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 여러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5G 상용화 선언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로봇의 자동화 기술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미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양상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말이다(The Future of Work).

테크 뉴스전문매체 '더 버지'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기술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해고한다는 자료를 찾아냈다. 이 매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것은 생산성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더 버지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스템은 개인의 생산성을 기록한다. 그리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하는 사람의 지시 없이 경고 또는 해고와 관련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전자상거래업계의 거인(아마존)은 이미 낮은 임금과 척박한 노동환경 때문에 수차례 뉴스에 등장했다.

처럼 취급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하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고 약속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기계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도로 교체될 수 있거나 교체해야 하는지입니다."

자동화 붐 속에서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산성 기록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개입이 필요한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인공지능 분야 시니어 에디터인 윌 나이트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기록이 우리 일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



직업의 미래...자동화 기술이 노동자 생산성 기준에 의거, 감시 해고 노동자는 일터에서 존중받아야...함부로 대하면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로 목표치가 높아 몰도 안 마신다고 말했다. 예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직원들이 "로봇처럼" 취급되고,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잘리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

더 버지의 보도 역시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짐을 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장 상사가 됐을 때 벌어지는 한 가지 시나리오다. 알고리즘이 많은 인간의 개입 없이, 노동자를 기록하고 경고하며 해고도 할 수 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재심을 청구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더 버지에 따르면 이 역시 해고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산업을 지원하는 단체인 ILSR(the 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의 스테이시 마철크는 "아마존 노동자들은 로봇에 의해 로봇

보입니다."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생산성의 기준이나 자동화의 범위 등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존이 BBC를 비롯해 이를 묻는 모든 매체에 내놓은 유일한 답은 이렇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처럼 우리도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회사 다른 부서나, 일하는 곳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업무 개선 코칭 등 충분한 지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자사의 노동자들이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동화를 적용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1주일 전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물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미래의 노동은 어떻게 될까?

수년간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사용해 노동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기록해왔다. 세 일즈 실적부터 공장 퇴근시간까지 디지털 분석이 적용된 폭은 넓었다.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의 이사인 데이비드 디 수자는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은 불가피한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그 기술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식으로 일을 하고, 아마도 일하는 방법에는 '옳은 방법'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이 보낸 메일의 숫자를 가지고 생산성을 추적한다면 그저 메일을 많이 보낸 이가 더 생산적인 노동자처럼 보이겠죠. 다른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더라도 말이죠."

생산성을 판단할 때 상대적 기준이 쓰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존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 단초다.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산성 기준을 사용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 (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 (718)886-0074(대표)
· E-mail: nyo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1면에서 계속)

2017년 공공종교연구소(PRI)는 “트럼프 시대의 당파 양극화: 2018년 미국 가치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다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치와 관습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에서 백인 개신교도의 절반 이상인 57%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답했으며, 유색인종 개신교도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히스패닉 개신교도의 63%와 흑인 신자의 67%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2045년 미국의 인구가 아시안·흑인·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센서스의 결과 보고에 대해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백인 크리스천들의 54%는 이러한 인종의 다양성 변화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흑인 신도들의 80%, 히스패닉 신도들의 79%가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의 반이민 감정이 미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땅이라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앤드루 화이트헤드 클렘슨대 사회학 교수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백인 복음주의 신자의 이민자들에 대한 상상을 생성했다”며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은 미국을 그리스도 국가로 생각하고 인종의 경계를 굳힌다”며 “이는 반이민 정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라이언 버지 박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복음주의와 백인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다양성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

이 있어야 하며 2)아프리카계와 라틴계 중 무교(종교가 없음) 젊은 층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3)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이 예배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백인으로 집약되는 복음주의는 미국의 인종적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오는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에 백인 인구의 비중은 절반 아래로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인 인구의 평균연령은



급격하게 높아지지만 다른 인종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있다. 또 소수인종의 출산율이 백인을 추월하게 된다.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주의 구성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무종교’ 인구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 공동의회선거연구소

(CCES)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1세 미만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의 3분의 1이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연령대를 40세로 확장할 경우에도 히스패닉은 20%, 흑인은 30%가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소수인종의 종교적 상태를 보여주는 통계 결과다. 이는 복음주의 신앙이 저변을 확대할 여지가 소수계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게다가 예배 참석률은 백인보다 소수 인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의 비중을 인종별로

조사한 결과, 백인은 31.4%에 불과했지만 아시안에서는 51.7%로 급증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종이 섞인 경우가 38.1%, 히스패닉이 36.7%, 흑인 36.4%를 차지했다. 백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재의 복음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드러나는 통계다. (3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아마존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오직 75%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목표율이 변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스테이시 미첼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아마존의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는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새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결국 목표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은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 스테이시는 “하위권으로 쳐져서 실직하지 않으려는 미친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1년 전에는 당신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생산성이 좋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 생산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비드 디 수자는 고용이나 해고와

같은 절차에 과연 자동화가 필요하지 기업들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과정이나 절차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상호작용이 한 줌의 코딩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습니다.”

이브라힘 다이알로는 지난 2018년에 직장에서 관리자가 아닌 기계에 해고를 당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상사는 당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는 해고됐습니다. 바로 위 상사는 물론,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때 그저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니다.”

다이알로의 바람은 자신의 사례가 너무 많이 자동화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데이비드 디 수자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볼 때, 인류가 수백 년이나 퇴보하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조직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재정 측면에서도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노동자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으로 퇴직해 반대의 뜻을 전하고 의식 있는 커리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시론

말과 경주도 할 수 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면모가 짙게 느껴지는 선지자라 할 수 있다. 그는 부르심 받을 때에도 자기는 어렵고 말할 줄도 몰라서 선지자로는 부적합하다고 거절했던 사람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고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는데 고통을 의연하게 당하기보다는 범상한 사람들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고 가끔적이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 사람이기도 했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는 다시는 저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한 어찌 보면 좀

비굴한 모습조차 보이는, 그래서 더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한 선지자였다.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한 연약하고 평범한 선지자였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그대로 충직하게 전하여 사람들이 싫어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선지자 사역을 그만둘 마음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들을 죽여주시기를 구하기도 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선지자였다.

그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때 그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다. “너무 힘들겠구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내가 다 악한 인간들을 정리해 줄게.” 아니면, 최소한 “나도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들냐?”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의 평균 시속이 70km인 반면 건강한 사람의 평균 시속은 10km에 불과하다. 말과 경주를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 지금 너무 약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아시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다 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다.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달리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한테 말과 경주라니?

이집트의 기독교 신자들을 콥틱교도라 한다. 콥틱교는 개신교와 외견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현재 이집트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천만 명이 콥틱교도다. 7세기에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기독교 말살정책으로 박해를 당하며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0년이 넘게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어느 날 정부의 지도자가 콥틱교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모카탐 마을에 가서 살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였다. 모카탐은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곳이다. 언제나 악취가 진동을 하며 쓰레기와 만지러운 곳이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말에 주저 없이 수락하여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산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 팔뚝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 그곳의 성도들은 모카탐에 살면서도 항상 밝은 표정을 잊지 않는다. 놀랍게도 쓰레기 하치장을 지나 깊숙이 들어가면 2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지하동굴교회가 있다. 이 동굴교회는 이집트의 성지순례 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리비아의 해변에서 이슬람국가 IS에 의해 21명의 청년들이 잡수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온 벌러간 콥틱 청년들이었다. IS는 신앙을 부인하고 회교도가 되면 죽이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참수되어 해변을 피로 물들였다. 그들은 말과 경주에서도 승리한 자들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져 버렸다. 우리는 말과 경주도 해야 할 사람들인데... 더 강해져야 한다...

thechoi82@yahoo.com



Global Leadership Forum & 2019 Commencement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한 Midwest University는 미국의 높은 교육 장벽에 도전하여 많은 난관속에서 글로벌 대학교로 성장하여 이제 33 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글로벌 리더십 포럼과 학위 수여식에 교민 여러분과 동문 가족을 초청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John R. Ashcroft, JD
Missouri Secretary of State
현, 미주주 국무장관



Dr. James Song
Founder / President
설립자, 총장



Dr. Jong Yong Lee
Pastor, Cornerstone Church
Harbor City, CA



Dr. Se Cheon Eom
Midwest Professor
교육 리더십 교수

Midwest Summer Seminar
May 20-23, 2019

Global Leadership Forum
May 23, Thursday 9:00-12:00 pm

Commencement
May 23, Thursday 3:00 pm

IEA Ordination Service
May 23, Thursday 6:30-8:00 pm

경영대학(원) B.A 경영학, 마케팅, MBA 리더십, 투자, 자산관리, 부동산, 비즈니스 경영, 공공정책과 행정, 공공 안전, 보안, 마케팅, 인력관리 리더십, 지역개발, 분쟁조정과 협상

국제항공대학 B.S 국제조종사, 항공정비사 (FAA 조종사, 정비사 면장과정)

교육대학원 M.A Education 두뇌개발과 영재교육, 기독교교육 M.A English Education (TESOL) 영어교육석사

신학대학(원)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D.Min 상담, 선교, 교육, 목회신학

상담대학원 M.A 결혼과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학교상담

음악대학원 BM, MM, DMA

리더십 대학원 MBA 글로벌 리더십 Doctor of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Ph.D. in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준비 못한 목사

오래 교제하는 목사가 있다. 오랜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했더니 전에 없이 풀 죽은 음성이다. 금년이나 내년에 은퇴를 한다고 한다. 정년을 꼭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형세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가 무척 힘들어서 하는 음색이다. 그럴 때는 여비를 보낼 테니 로마로 와서 얼마 동안 지내다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까 싶다. 그는 은퇴한다 해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웅얼거린다. 그는 소위 자유스런 신학교를 나왔다. 나는 보수 신학교를 다닐 때 자유로운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자들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될 사람들로 각인했다. 그런데 구라파에서 초교파로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그를 알

았고 회개를 많이 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윤리관과 성서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재능으로 충만한 예술가다. 그림실력이 대단하여 국전에 입상하기도 했고 사진을 잘 찍어 대상을 여러 번 받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목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공부도 잘하고 또 많이 했고 정의에 대한 의문이 충만하여 육에 갇지 인정 비겁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작은 교회 목회를 해오고 있다. 작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으로 자족해야지 은퇴에 대한 것은 꿈꿀 여지도 없었다. 늘 절곡의 가쁜 숨을 헐떡거리야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해야 할 시점에 서게 되니 캄캄한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공부를 잘

하거나,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목회는 뛰어나게 잘하는 분이 있다.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지 싶다. 교회 앞 가로수가 심어 미터간격으로 심겨져 있다. 돌베나 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지역, 같은 땅, 같은 조건에서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놀라운 학위도 없는데 그에게 구름 떴처럼 성도들이 몰려든다. 목회 중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다가 은퇴했다. 그의 기사가 기독교계통의 신문, 또는 일반 신문에까지 실렸다. 그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머리말 기사가 요란하다. 탐욕을 정복한 목사로 이 시대의 아

주 드문 의인의 표상처럼 그려졌다. 그에게는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그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할까 싶다(모든 목회자는 이런 것을 꿈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들이 답이었던 교회는 큰 교회이기에 전별금은 대단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 퇴직금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몇 십 명의 가난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싶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 일찍이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1280-

1343)은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단지 사용권만 갖는다고 했다. 오랜 싸움으로 유명했던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하는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다. 즉 소송비로 몇 백억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 모든 것이 성도의 헌금인데 말이다. 그 돈이라면 돈 때문에 실의에 빠질 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넉넉히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평생 사역하고 은퇴해야 할 시점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풀죽은 음성에 오만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은 주님께 빨리 재림하시는 일이었지만, 어찌 하든지 그에게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고 싶다. 평생 주님 바라보고 외길을 걸은 사랑하는 친구, 그로 하여금 환한 웃음을 짓게 해주고 싶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양수철 목사
(에버그린 선교교회)



먼저, '삶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삶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냄비를 준비'한 후, 냄비를 '열정'이라는 불에 달굽니다. 충분히 달구어지면 '자신감'을 교만이라는 눈금이 안보일 만큼 붓습니다. 자신감이 잘 채워지고 나면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양념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이때, '우정'이라는 양념을 어느 정도 넣어주면 훨씬 더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약간의 특별한 맛을 원할 경우, '이성(異性) 간의 사랑'을 넣어주면 좀 더 특별해집니다.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생가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생길 경우는 '질제'라는 국자로 집착을 걷어내면 됩니다. 이때, 실패하면 '실연'이라는 맛이 나는데, 이 맛은 아주 써서 어쩌면 음식을 망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쓴맛을 없애고 싶을 경우, 약간의 '용서나 너그러움',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깊은 맛을 원할 경우는 약간의 '선행과 관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끔, '질투와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계속 방치해두면 음식이 타게 되므로 그때그때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가끔 '권태'라는 나쁜 향이 생기는데, '도전과 의욕'이라는 향료를 넣어서 없애야 합니다. 이쯤에, 만약 삶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지치게 돼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신앙'이라는 재료를 넣어주면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알게 되면 '기쁨'이라는 맛이 더해 가는데, 그 맛이 더해져 잘 어울리다면 진정한 '자유'라는 맛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 '평안'과 '감사함'이라는 행복한 향이 더해짐으로 음식의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이 향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이웃에게 베풀어 주고 싶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요리하는 끝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라는 양념을 넣어 한소끔 끓인 후에 간을 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모든 맛이 더욱 잘 어울려서

할렘할렘한 맛이었으므로, 편하긴 하지만 일할 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려면 옷을 입은 후에는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만 했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끝장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 희희낙락(喜喜樂樂)하지 않고, 우리가 장군처럼 들판에 나가 야영을 합니다(삼하 11:11). 그리고 진나라의 대표들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렸습니니다. 진나라의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화제(話題)로 삼은 자도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각 고을의 대표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법은 세 가지만 둘 뿐입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그 밖의 진나라 법들은 모두 폐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의학적계에는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증상은 신체발육이 부진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주로 전쟁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병균이나 영양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는 뜻입니다. 죄란 일종의 빚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용서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영어로 forgiveness라고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용서라는 pardon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지!"하는 마음을 품어도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뿌리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비가 올 때 독초는 다시 자랍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로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화가 날 때 다시 분노의 싹이 틈니다. 분노의 싹이 틈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죄들을 용서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2-14절)

어(四字成語)가 바로 약법삼장(約法三章)입니다. 세 개만 두어 나머지 쓸데없는 법들은 모두 폐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유방이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방은 백성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016년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년에 13,092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고 지난 13년 동안 부동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사랑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기서 용납이란 단어의 원어(헬라어)는 '아네코마이'인데 '지지하다,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들은 만한 사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용납은 상대방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입니다. 일반 달란트라고 하면 6,000 x 10,000 즉,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지요. 그러므로 6천만일(日) 즉, 23만년 동안 일해서 1불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 2,300번 다시 태어나서 일해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말씀의 요점(要點)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고 하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불법이 성행하는 삭막한 시대에 뜨거운 사랑의 화신이 되어 주님처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2면에서 계속) 특히 주 1회 이상 예배를 드리는 비중은 히스패닉에서 30%, 아시아인 23.2%로 나타나 백인의 19.6%를 크게 앞질렀다. 이 통계를 정리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백인에서는 51%로 나타났지만 아시아인과 히스패닉 인구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한다. 흑인에서도 60%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주의는

백인 중심이라는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젊은 소수계 인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참석하며 복음주의 교회의 강력한 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복음주의가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복음주의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크리스천의 연합은 최고의 성경적 가치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을 품으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두 서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귀하다던 비유를 생각해보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민족, 계급, 성별 같은 로마사회를 구분 짓던 관습들을 능가한다. 크리스천이라

는 사실 외에는 아무 표시도 필요 없다. 백인 복음주의로 부정적으로 브랜드된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인이라는 동질적, '끼리'문화는 인종, 경제, 연령, 성별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분리한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 세대의 방법인 것이다(롬12:2).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3. 강영승(1888-1987)

강영승은 1888년 8월 9일에 평안도 평양 박석굴에서 출생했다. 그는 부모를 따라 1905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노동이민을 갔다가 호놀룰루 한인영어학원을 졸업하고 1912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상항)에 안착했다. 그는 이듬해 상항 쿠퍼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해 12월에 본 청년회의 전도 국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듬해 4월에는 본회 회장이 되었고, 이듬해 3월에 개최한 계삭회에서 강영승이 상항 교회 유사로 선정되었다. 당시 강영승과 황사선과 정인과는 권사로, 그 외에도 양주은, 홍 언, 김필권, 정영수 그리고 조병욱이 유사가 되었다.



강영승

1928년 상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인으로 임명 시카고법률대 박사학위 취득...독립운동 매진

한 사회가 공평 정직되기까지 욕망이지만 우리 민족 사회의 공평 정직이 관일치 않으면 소망을 이루지 못할 바 나의 여기에 대하여 더욱 힘쓰려 하노라.

강영승은 1917년 여름에 장리욱과 임 초와 함께 클레몬트 학생양성소에서 문을 연 유년 하기 국어강습소의 교사로 활동했고, 이듬해 1월에는 위의 장소에서 10여 명의 신도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습소를 개교하였다.

강영승이 위의 시카고 법률대학에서 석사에 이어 '증거를 세우는 새 규칙'이라는 논문으로 1920년 7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연설을 그해 8월 중가주 맥스웰에서 듣는다. 그달 8일 저녁에 맥스웰 부근 각 농장의 한인 60여 명이 타운홀에서 그가 한 시간 50분간 연설한 '공화민국의 자격'을 듣고 쇠락한 흥미를 헤치고 우리 민족 백성의 절대 필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해 11월 한승근과 최능익, 김창민, 신영철 그리고 조율림이 발기인이 되어 다뉴바에서 4, 5삭 동안 강영승을 초빙하고 영어숙성과를 개교하였다.

강영승은 1921년 3월 상항에서 있는 독립경축회에서 '오늘'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1919년 3월 1일은 인생

의 용감을 처음 보인 날이고, 선언서에 서명한 여러분은 위대하고 정당한 우리 독립의 영웅들이며, 오늘은 전사 영웅의 제사날이고, 이날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더욱 극진히 할 것이며, 국가 독립은 한인의 독립 자유에 있음을 알고, 권리보다 정의를 먼저 할 것이며, 사람마다 천직을 이행할 것이고, 싸워서 다음날 용감으로 전진할 것을 역설했다. 그해 그는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이 된다.

전도사

1928년 9월 3일 오후 2시에 상항 부쉬 스트리트 백인교회당에서 샘 해이 감독의 사회로 개최한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 교회 구역대회에서 황사용과 함께 강영승은 상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인으로 선임되었다. 본 교회 담임이었던 이대위 목사가 그해 6월 17일 소천함에 따라 황사선 목사는 담임이 되었다. 이해 본 교회의 주소는 옥 스트리트 1053번지였고, 전화번호는 7041번이었다. 10월에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김삼돈을 청하여 약 한 시간 반 동안 '방탕하던 자식의 회개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설교를 듣고 일반 교인들이 많이 감동했다.

11월에 본 교회에서 개최한 계삭회에서 데이비스 목사를 초청하여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자'라는 제목

로 사서 가지고 오시옵소서.

본 교회 임원 일동이 위의 광고와 함께 "웃 벗은 동포에게 웃을, 떨떨 떨고 있는 이를 생각"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함경남도 동포를 위하여 "겉옷이나 속옷이나 어른의 것이나 아이의 것을 무릎하고... 오는 12월 10일 까지 전으로 도달케 하심을 바라나이다"고 말했다.

그해 12월에 정남수 목사를 모신 세 번째 결집 집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심이 다시 돈독해졌고, 그가 성탄 축하식에 초청되어 큰 은혜를 끼쳤다. 그는 한인 종교계에 빌리 썬 데이로 미국인 교회에 명성이 자자한 자였다고 한다.

1929년 중가주 리틀리 교회의 아동가극대가 상항을 방문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두 달 후인 5월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김춘하의 부인이 귀국하였고, 이순복은 서양 식당을 개업하였고, 낙상 후 비관하여 배를 찢러 이선범이 자살하였고, 이천용과 마에나가 이혼을 하였고, 황사용 목사 사모가 수습하였고, 이응묵의 부인 이신환이 사망하였고, 박창순의 부인 박애나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러나 6월과 7월에는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영적 잔치가 있었다. 6월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윤하영 목사를 모셨고, 7월에는 예일대학에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여 한 가정이 탄생했으나 류태경이 환국하고 최웅선은 나성으로 이주하여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상항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정위원이 조직되어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상항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스탠포드, 새크라멘토, 리틀리 등에 재정 모집위원을 두었고, 서기에 양재현을, 재무에 백임규를 선임했다.

상항 한인감리교회

2월에는 상항 어린 학생회가 나서서 동회 회장 문덕소 이하 남부 학생들이 본 월 13일 저녁 한 끼를 단식하고 고국에서 잘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학우들에게 동정을 표했다. 그해 3월 남감리교회 지방회 보고에 따르면 상항 한인교회의 재정은 84명이었고 출석은 45명이었다고, 5명의 세례교인이 추가되었고 헌금은 805달러에 달했다. 이날 강영승은 품행을 통과하고 전도사 직책을 계속하게 되고, 양주은이 새로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상항 예배당을 준공하고 6월 1일 하오 2시에 상항 시내에 계신 동포는 물론 부근에 계시는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낙상 예배를 드렸다. 헌금 총액은 1160달러로 25센터였고 7달러 51센트를 남기고 지출했다. 지출 항목에는 예배당 의사, 강대상, 강대의자, 주일학교 의사, 사무실 책상, 난로 카펫, 문밖 방석, 찬미가, 미국기, 성찬기, 연조 기명, 방바닥 질, 순반비, 인쇄비, 통신 및 문방구비, 잡비 등이 있었다. 7월에는 상항 교회가 한인들의 우체국이 되기를 자청하여 새 예배당 주소를 통신 번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금후 본 교회에 관한 모든 통신은 이하 번지로 하시면 지체없이 신속 배달되겠습니다. 황사선



상항 한인감리교회

목사. 메이슨 스트리트 1321번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강영승은 2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강영승은 나성의 할리우드에서 30년간 한방원을 경영하면서 '동양의학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영문서적을 발간했다. 그는 1987년에 작고했으니 향년 99세였다. 2016년, 한국 정부는 강영승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듬해 그의 어머니 황마리아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damia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전유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 박은성 Tel: (213)227-1400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문수 Tel: (213)388-7101, (F) (213)388-6564</p>	<p>나침반교회 담임 목사: 민경엽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목사: 김현인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p>
<p>대흥장로교회 담임 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www.d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Tel: (213)559-7728 (전화) (323)210-6990</p>	<p>미주양곡교회 담임 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 목사: 임승진 Tel: (213)381-2202, www.mpcia.org</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 Tel: (310)749-4756</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p>
<p>베델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한요 Tel: (949)854-4010 bethel@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상덕 Tel: (562)694-6214</p>	<p>세계소망교회 담임 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 목사: 임승진 Tel: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p>	<p>은혜한인교회 담임 목사: 한기홍 Tel: (714)446-6200, www.gracemi.com</p>	<p>주님세운교회 담임 목사: 박성규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 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www.gcjc.org</p>	<p>좋은마을교회 담임 목사: 신원규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p>	<p>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 이종용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vc.com</p>	<p>토렌스조교회 담임 목사: 김우준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p>	<p>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 김석수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p>



목회서신

‘너무나 그리운 어머니!’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5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고 너무나 어머니가 그리워 집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엔 우리 어머니가 고령이셔도 살아 계셨고 위태로웠지만 행복한 어머니 주일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한 모든 자녀 된 이들의 아픔이요 그리움이요 후회스러워 하는 애처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의 충효가가 5월이면 주가를 발휘하고 우리에게 더 가깝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버이 살아 실제 섬김일량 잘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삼강오륜 임금과 신하의 관계(군위신강)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위신강)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자유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곧 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생활의 중요하고 가정에서 가족으로서의 생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주 안에서 서라 하나됨, 개혁, 도약’ 주제 제 27회 기감 미주자치연회, 17개 감리사 선출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제 27회 미주자치연회가 ‘주 안에서 서라(빌4:1) 하나됨, 개혁, 도약’을 주제로 7일과 8일 양일간 나성동산교회(이경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주 안에서 서라 하나됨, 개혁, 도약’ 주제 제27회 기감 미주자치연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정인호 감리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설교했으며 은희곤 감독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성찬식에 김중현 감독(중앙연회), 김학중 감독(경기연회), 박효성 집전 감독(미주자치연회)이 미주자치연회 감리사들과 함께 성찬을 집례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은희곤 감독의 사회로 본회의가 개최돼 미주자치연회의 회무가 시작됐다. 미주자치연회는 첫 날 공천위원회보고, 각 지방 감리사보고 및 교역자 품행통과, 준회원 허입식, 각종 보고, 세미나(김학중 목사-“이 시대의 영성”, 도상원 UMC감리사-“이민교회의 오늘의 진단과 내일의 전망”), 분과위원회, 은퇴찬양예배, 별세회원 추도식을 가졌고 둘째 날 감리사선거, 표창식, 목사안수식 등을 거행했다. 연회가 개최된 나성동산교회는 교단을 탈퇴했으나 미주자치연회와 새로 부임한 이경환 목사의 수고로 법정소송을 제기해 교회를 되찾았다.

둘째 날 회무는 분과위원회 보고로 시작됐다. 그리고 19개 지방의 감리사 선거가 있었는데 △남가주남 이재삼 △남가주동 정인호 △남가주북 지성민 △남가주서 신광섭 △뉴욕 동 이선구 △뉴욕서 민경용 △뉴잉글랜드 이준호 △동남부 정찬의 △멕시코 박승기 △샌프란시스코-시애틀 현진광 △시카고동 한철희 △시카고서 조익성 △오렌지 임영호 △워싱턴 김성도 △중남부 최진호 △캐나다동부 남궁권 △캐나다서 김병태 목사가 각각 선출돼 은희곤 감독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하지만 미서북부와 중부동 2개 지방은 감리사가 선출되지 못했다. 이 외 이임하는 감리사들이 공로패를 받았고 성역30주년 목회자들과 연회준비에 수고한 이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정직6개월에 처해졌던 한 회원이 장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복권됐다.

승인되면 미주연회의 재산이라도 본부 유지재단의 관련법규를 적용받게 돼 교회재산을 공적으로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제27회 연회를 폐회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제 26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안하고 제27회 연회원 일동으로 발표된 ‘제27회 미주자치연회 LA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연회는 “1993년 연회가 시작된 이래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 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제27회 미주자치연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개혁과 도약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에 새살이 다시 돋게 됨을 믿는다”며 회개 일치 준수 개혁 선명 평화통일 등 6개 부분에서 미주자치연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준호 기자)

“아버이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 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 성황리에 열려

KCBC기독교방송(대표 한기형 목사)과 우리방송(대표 김흥수)이 공동주최한 제 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형 대표는 “올해 처음 효도잔치를 열었는데 KCBC 기독교방송이 해마다 효도잔치를 열려고 한다”며 “아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운동이 기독교문화운동으로 정착이 돼 많은 가정과 교회들에게 섬김의 정신이 체질화 되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목사와 어머니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된 제 1회 효도잔치는 박성근 목사(남가주

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리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128:1).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효도하고 효도를 받는 효도하는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 불신의 차이를 효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믿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신5:16).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2).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겐 세상의 전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어지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짐이 되는 부모님의 짐을 달게 지고 그 효도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축복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자 루터가 주장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는 지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가? 1)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효도생활을 통하여 훈련 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3)마땅히 행하여할 일이기 때

문입니다. 4)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자들이지만 말입니다. 아직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의 부모님 곧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니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뒤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9년 아버지 주일을 지나면서 내 곁을 멀리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머니 없는 아들로서의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저의 마음을 목회서신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그리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감사예배 및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84,650.48달러 모금, 1억원이상 전달예상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감사예배 및 보고회

지난 달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700여 명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대표장 한기형 목사) 감사예배 및 보고회가 8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한기형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이날 추진위원장 이병만 장로는 경과보고에서 “4주 동안 실시된 강원도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 교계와 일반단체가 하나가 됐다”고 말하고 “모금운동을 실시하기 전 많은 분들을 통해 투명성 보장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모금운동을 실시했을 때 투명성 문제로 이 어진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강원도재난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이번 모금운동에서 활동비는 모금액과 별개로 함께 뛰어다니는 분들이 각축해서 조달했으며 모금된 금액은 전액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계를 맡은 최대용 장로는 “9일 오전 9시 현재 \$81,550.48이 모금됐으며 미주연합후원회 감사예배 전 영감 전 거주하원의원, 연목회, 총선선교교회, 남가주교회총무단, 크리스천헤럴드, 오렌지카운티 전도회연합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가 추가로 모금에 동참해 현재 \$84,650.48이 모금됐다”며 “강원도 이재민들에게는 1억원 이상 전달될 것”이라 밝혔다. 은혜한인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기형 대표회장의 환영 및 감사의 말씀으로 열린 1부 감사예배는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장)가 대표기도했으며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회회장)가 격려사를, 윤에스터 사모가 특송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로마서 12장15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한기형 대표회장이 핵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병만 추진위원장이 경과보고 했으며 최대용 회계사가 회계보고 하고 영감 전 거주하원의원이 격려사를 했으며 이호우 목사(OC교회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병만 추진위원장 사회로 시작된 2부 순서는 만찬시간을 가진 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굿네이버스가 주최로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사로 나선 하형록 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사로 꾸는 꿈을 꾸라...” 굿네이버스 주최 토크콘서트, 강사 하형록 회장

굿네이버스 주최 토크콘서트가 11일 오후 6시 더소스몰에서 열렸다.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세계적인 주치전문설계회사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이 강사로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었다. 하형록 회장은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며 꿈을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자녀들이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꿈은 어떻게 이

뤄야 하는가?”라 질문을 한 뒤 “꿈은 명사로 꾸기보다는 동사로 꾸어야 한다”며 “의사 변호사 등 명사의 꿈은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이루지 못할 때 상실감이 빠져버린다.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는 명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실감이 작용해서다. 동사로 꾸는 꿈의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의 경우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직종인데 실령 변호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남을 돕는 직업이 다양하기에 타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꿈에 비추는 직종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웃으로 인해 내가 올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참 행복과 축복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KCBC기독교방송과 우리방송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제4회 PGM 전문인 선교사 집중훈련 6월 17-23일, 선교집회와 강의 및 현장실습

제 4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이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7일 동안 뉴저지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선교 열정을 갖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전문인 선교 헌신자들을 초대하는 이 집중훈련은 PGM세계전문인 선교회(회장 호성기 목사)가 2016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PGM세계전문인선교회

는 현재 32개국에서 23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가 26개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스포츠, 농축산, 교수,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IT, VBS, 청소년, 실버,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한다. 저녁 선교집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임재영 목사(필라델피아안도교회, 전 이스라엘 선교사), 고훈 목사(뉴욕하은교

회), 양충언 목사(히스패닉 목회), 김은범 목사(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가 차례대로 말씀을 전한다. 강사진은 안사무엘 목사(실행총무), 제이김 전도사(영어권 훈련부장), 박상수 선교사(교육전문/강사사역), 김현영 선교사(농축산전문/순회사역), 정준영 선교사(지역교회/강사사역), 폴현 선교사(KCBMC사무총장) 등이다. 또 현장실습은 이태후 선교사(필라델피아시민사역)가 전도훈련은 고대은/성은지 선교사(다민족교회개척사역)가

맡는다. 훈련내용은 △선교의 제 4 물결 △PGM 7대 핵심가치(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 땅끝선교) △전문인 선교사예 △타문화 전도 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선교집회 등이다. 이번 훈련 등록비는 개인 400달러(부부 600달러)로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admin@pgmusa.org나 전화 (610)397-0484로 연락하면 된다.

기도/칼럼

라마단 30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이슬람의 최대절기인 '라마단'이 5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됐다. 해마다 이슬람의 월력에 의해 날짜가 바뀌는데 올해 라마단은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 동안이다. 라마단은 "더운 달, 거룩의 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신앙 5대 기둥 중의 하나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금식기도를 한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음식, 술, 담배 등을 일체 입에 대지 않으며 금욕생활을 한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살라트'의 생활을 철저히 지킨다. 소녀는 7세, 소년은 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라마단행사에 참석해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 신실한 무슬림들은 매일 사원에 가서 꾸란을 배우며 기도한다. 특별히 27일 째 되는 날은 "능력의 밤"이라고 철야기도를 한다. 저들은 라마단의 계율을 지키며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라마단 기간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데가 식품점이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해지기 시작하면서 폭식을 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는 해프닝도 많이 일어난다. 라마단이 끝나면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라마단은 이슬람의 종교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은 18억이다. 최대의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라마단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슬림 영혼들을 사랑하며 함께 30일 동안 중보기도할 것인가?

bible66@gmail.com



선교 편지

인도네시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을 영접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기도로 동역합니다.

△5월 6일 월요일부터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뜨는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음식뿐만 아니라 침도 삼키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무슬림들의 경건과 종교심이 더욱 부각되고 금식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금식으로 헛된 우상을 찾는 2억 명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진리를 알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도와소서.

△지난 해 슬라웨시와 롬복섬, 자와 섬 동부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지진 등으로 아직까지 6,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거를 위한 공간이 속히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재난 이후 정책과 지원이 지속되게 하시며 어린 학생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자와 담당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여성 직업훈

련을 위한 유니온 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고, 한글 수업을 진행하는 장 선교사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학연장 교육을 위한 국제단체(인크리스)와 연합과 동역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출간된 아시아 신학연장교육 책자가 잘 보급되도록 도와주시며, 김 선교사가 세미나 준비를 할 때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소서.

△유니온 센터에서 사역을 도우며 동역을 시작한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신학 수업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령충만, 지혜충만함으로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현준이(대학교 1학년)와 현민이(중3)가 학기말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고, 먼저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분들이 많은 선물을 받고 주는 남은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하루 보내실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순간 순간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돕습니다.

-주님 그늘 아래 인도네시아에서 김태호 장윤희 현준현민 선교사 올림
theo88@daum.net

헝가리

Dear,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눈물... 멀리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헝가리에서는 5월 첫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날 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몇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울먹거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예배 후에는, 70세 이상 어른들을 의자에 앉힌 후,

한국식으로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조그만 용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잇음이 되지 아니하리라"(사44:21).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감사합니다. '복음전파'와 '예수님 제자 만들기'에,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겠습니다. 주여...! 소식과 기도제목, 간단한 사진 설명과 함께 드리겠습니다(사진은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연관 있음).

1. 5월 첫 주일, 어머니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

사하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자고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2. 지난 부활절 주간에 저희 구역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우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려가 특송도 하고, 예배 후에는 준비해 간 삶은 계란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안드레 할아버지(87세)는 혼자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특송도 곧잘 하십니다.

3. 저희 "소금과빛개척교회"의 16번 째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부활절 날에 지역 이름을 따서 "서서디커뮤니티교회"로 시작했고, 이사한 후에 "괴바니아개척 교회"로 바꿨다가, 다시, 처음 거리의교회 이름인 "소금과빛개척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년, 60년, 100년 후에도 이 땅에 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4. 고아원에서, 양로원에서, 거리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원의 심대들이 주님 사랑하여 교회에 나오도록,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학교를 잘 다니도록...! 리치, 밀란, 클라우디아, 다비드, 선디, 올란, 버나사, 비앙카, 토미, 에릭, 안치,

페트리치아... 저희 책, "나도 존중받고 싶다:를 읽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나도 울었지만, 내 친구가 그 책 읽으면서 이를 동안 울었다고..." 이 책은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사역을 하시며 하셨던 말씀들을, 생생히 깨닫게 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8:20). 후, 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두란노몰에서 저자구매(70%)로 남편도 배송해주겠다고요. 한 권에 8,400원이고, 무료배송. 저희 카톡(ID: hungarymom)으로 연락주시면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미국은 LA두란노에서 저자구매로 한 권에 8.4달러이며, 배송비는 1.3달러 든다니,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5. "소금과 빛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5월 19일 주일예배 후,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자들의 마음에 미션을 갖도록! 피테르 전도사, 타마쉬, 클라라, 주저, 로베르트... "너는 나의 잇음이 되지 아니하리라"(사44:21).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 서명희 드림.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18)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English Bible

Nehemiah 1:5-7

5)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s,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NIV 1984)

WORD & IDIOM

* awesome: 두려운 * keep a covenant with ~: ~와의 언약을 지키다 * covenant: 언약 * commands: 계명 * attentive: 신중함, * confess: 고백하다 * commit: (죄, 그릇된 일)등을 범하다 * decrees: 법령, 칙령, 규제,

GRAMMAR

5)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 이 문장은 기도의 시작 부분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으로 Lord 이후의 모든 내용은 형용사적 기능을 가지고 Lord를 수식하고 있다.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당신의 귀가 주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이 뜨도록 해주십시오
to hear the prayer () your servant is praying
그 기도를 듣기위해 당신의 종이 빌고 있는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당신 앞에 낮과 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 이스라엘 백성인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빌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 let your ear be(원형동사) attentive and your eyes open(원형동사)은 주어가 생략된 5형식 문으로 무엇을 하도록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사역동사 Let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역동사 다음의 목적어 뒤에는 반드시 원형동사를 쓴다. your eyes open에서 open은 your eyes가 복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동사로 시작된 문장이기 때문에 원형동사(open)를 쓴 것이다.

*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 안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 이후의 문장은 앞의 the prayer와 sins를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고 있다.

I confess the sins () we Israelites,
나는 죄악을 고백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나 자신과 나의 아버지의 집을 포함하여 당신께 죄를 범해 왔다 => 저는 저 자신과 제 아버지 집을 포함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범해 온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 including ~ 로 이어지는 문장은 we Israelites를 선행사로 취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축약한 분사구문이다. "~를 포함하여"로 해석한다.

STUDY & THOUGH

■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포용정책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렘 25:11, 12; 29:10)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속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이루어가는 세계열강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의 도구임을 알게 한다.
■ No power can be gained by any nation in this world without God's permission.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남은 안식(히4:5-11)찬319장

가난한 안식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안식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는 왜 그것을 누리려고 열심을 가쳐야 합니까? 첫째, 여호수아는 참 안식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9). 구약의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난한 안식은 그리스도안에만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안식입니다(10). 하나님의 6일 창조후 쉬신 안식은

오랜 세월동안 그 날을 지킴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래 그리스도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 맛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11). 이미 받은 구속일지라도 항상 열심과 수고를 통해 얻게 하심으로 참안식을 참되이 모든 영역에 누리게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화 살아있는 말씀(히4:12-16)찬197장

중요한 안식의 누림 역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까(12). 혼과 영, 관력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모호하고 혼란과 공허한 생각들의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안식과 안일은 말씀에 의해 분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거울처럼 보이지 않

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조명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역시 말씀인 성경은 심판대에 퍼질 모든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식은 성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 안식을 누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4:14-16)찬144장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를 넉넉히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첫째, 그의 승전이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은 승전으로 더 확실한 속죄를 증거했습니다.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요일1:9). 둘째,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친히 참사람이 돼 온갖 고난을 당하셨음은 우리의 약점을 용납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때를 따라 적합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항상 자기 백성을 시시때때로 도우심으로 그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한번으로 마쳐진 그 긍휼이 영원히 계속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분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목 제사장 직분에 맞는 그리스도(히5:1-4)찬318장

사도는 제사장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예수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겸손히 드리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 임무에 임했듯이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양으로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둘째,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

리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피로써 참다운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약의 상징과 모형이 실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동시에 대속의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성부가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제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은혜를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금 성부가 준비하신 대제사장(히5:5-7)찬50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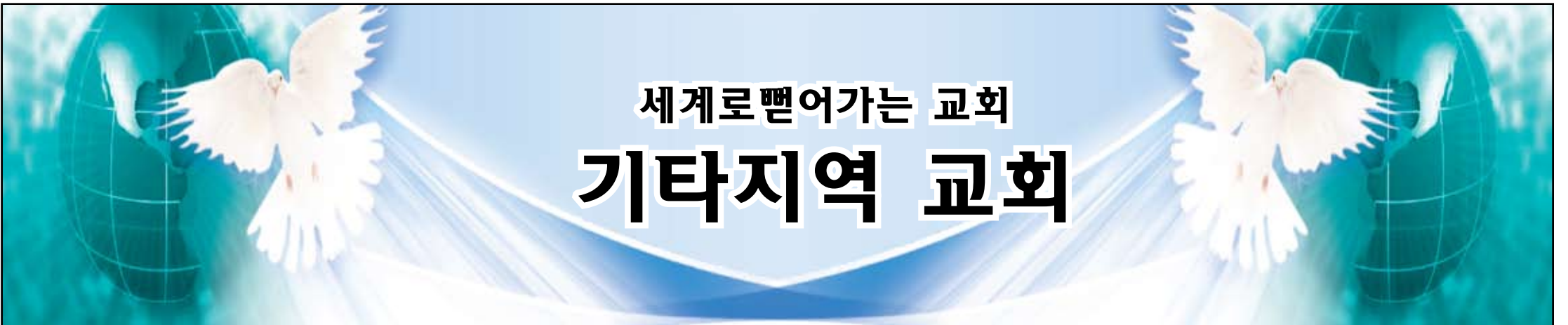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가집니다. 어떻게 구속이 성취됐습니까? 첫째, 그는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5).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성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얻은 직분인 것은 아론처럼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습니다(6).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의 문

제를 해결해야만할 대제사장이기에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구속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성령은 밝혀주셨습니다. 셋째, 그는 통곡과 눈물의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7).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기 위해 겹세마네에서 통곡의 눈물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토 순종을 배우신 아들(히5:8-9)찬97장

계속,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자격문제를 논함으로 그의 속죄가 영원함을 주장합니다. 아론의 직분이 상징주의 모형으로 나타났을 뿐 오직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만이 영원한 효력을 가졌기에 더 완전한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첫째, 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8). 둘째, 그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9). 그의 완전한 구속의 성취

는 영원한 효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즉각 죄사함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 죄짓는 생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일1:9). 셋째, 독특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10). 그의 제사장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론의 직분이 결코 견줄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론 그 효력을 누립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including Galbri, Mongo, Bks, Benel, Boston, Salut, Siae, Andok, Alkan, Anger, Elpas, Yongsang, Killin, Winst, Jue, Tacom, Philadelphia, and Mijoo. Each entry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플랫폼 N세대 네트워크

N세대(Next Generation) 네트워크 3회 모임이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뉴욕선교사의 집에서 열렸다. 청년과 유스,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만남인 N세대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장규준 목사(뉴욕주교교회)와 조희창 목사(낮은울타리 대표)가 이끌어가는 이 단체에 대해 장 규준 목사는 N세대 네트워크가 “조직이 아닌 플랫폼의 개념으로 생각해달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자생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목사가 “N세대(Next Generation)들의 비상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내용을 게재함으로 N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N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 없는 교회의 미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교계의 현실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들을 잃어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UCLA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교회에서 유스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70%가 교회를 떠나고, 졸업을 할 때에는 20%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다음 세대 상황을 살펴봐도 세 가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뉴욕 뉴저지 지역

80-90%의 교회가 미자립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교회들마다 생존 이유로 장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열악한 재정 상황과 담당 사역자 부재로 인해 청년/청소년 사역 활동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교회연합사역이나 파라처치운동(Para Church Movement) 사역 역시 많이 위축됨으로 인해 작은 교회 청년/청소년들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문화와 인본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정

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교회의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 이상 안타까워하며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부담 가운데 N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자들의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N 세대들이 비상하는 부흥을 꿈꾸며 모여서 기도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대안을

장규준 목사와 조희창 목사가 이끌어... 2018년 12월부터 2달에 한 번씩 모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자 제 1회 N세대 네트워크 모임이 2018년 12월 13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격월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고, 현재 3회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N세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대안(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N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트

워크 형성입니다. 수평적으로는 N 세대 사역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1세대들을 네트워크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5세대 네트워크, 2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1세대 네트워크, 1.5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2세대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물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N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팀(그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N 세대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 Think Tank 그룹, N 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기도 그룹,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그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사역



지난 5월 5일 열렸던 세 번째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청년/청소년을 위한 집회/수련회/대회를 개최하는 일, N 세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여 세

던 그 시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 신정왕국을 이루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재현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모임입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단체주의를 벗어나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성령께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놀라운 N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N세대 네트워크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gjchang@hanmail.net(장규준 목사), woollarius@gmail.com(조희창 목사)

(유원정 기자)

우리는 일, N 세대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지역교회(Local Church)와 파라처치(Para Church)를 연계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N세대 네트워크는 전도서 4장 9-12절의 삼겹줄 동역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몸부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절망의 시대에 사사 시대 이후 어두웠

효과적 전략이 건강한 소그룹 만든다!

리더십저널, 뉴송교회 폴 커크 목사의 소그룹 활성화 노하우 보도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의 삶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깊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소그룹의 장점들 때문에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든 소그룹이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조건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소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소그룹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 폴 A. 카크 목사는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8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1.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시작하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방법은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리더에 대해 회의적이고 계급적인 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만일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형태라면 새로운 소그룹 사역을 만드는 것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2. 리더에게 적절한 지원, 훈련, 자료를 제공하라. 우리 소그룹이 초기에 저질

- 렀던 실수는 리더를 발굴해서 훈련하고 동기부여까지 하고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도 없이 그냥 느슨하게 풀어둔 것이다.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훈련 자료를 필수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지속적인 소그룹을 단기 특별관심 소그룹으로 보충하라. 많은 개개인들은 정규적인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는 적절하게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에는

- 관계, 이혼, 질병에서의 회복 등이 포함된다.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이라면 멤버들의 특별한 필요를 다룰 단기 그룹이 있어야 한다.
4. 새 리더들이 자신의 그룹을 모집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뿐 아니라 비 그리스도도 초청하게 하라. 소그룹의 인원을 구성할 때 각 그룹의 리더들이 자신의 그룹을 구성하게 하고 목회자들은 비상수단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전략은 소그룹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접

근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감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한다. 새 리더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멤버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소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전도 목적으로 권장돼야 한다. 그룹 멤버들이 섞여 있게 되면 그룹은 일방적인 그룹보다는 더 빨리 영적인 깊이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간다.

5.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를 찾아내라. 은사가 있는 교사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좋은 교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소그룹을 경험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인 리더들은 다른 은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데 교사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리더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 15:14).

6. 소그룹이 외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전하라. 소그룹에게 봉사와 선교, 아웃리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긴 하지만 충분히 수고할 만하다. 소그룹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을 붙들 때, 그 경험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영향력도 극대화 된다.

7. 소그룹을 완벽한 공동체로 선전하지 말라.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유토피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진행 중인 불안정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달콤한

것도, 편안한 것도 없다. 공동체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희망의 몸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우리 혼자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따라서 혼자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각자의 상처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살아갈 때는 치유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게 된다.”

8.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되 획일적인 지침은 삼가라. 소그룹 커리큘럼 교재는 편의성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는 특정한 필요에 바탕을 두고 연구해서 선택한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적극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획일적인 교훈이나 지침을 요구하는 자료는 피해야 한다. 신빙성 있는 그룹이란 탄력적이며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룹이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250.00	
15.5 × 2.8cm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